

# 완도 신지동초, '시(詩)·작(作) 동시집 출판기념회' 개최

### '2023. 학생, 한 권의 책이 되다' 사업의 지원 받아 진행해 5명의 어린이가 직접 쓴 동시 70편과 시화가 수록되 발행

완도 신지동초등학교(교장 조윤자)는 지난 9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을 초대하여 '시(詩), 작(作), 동시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 동시집은 전라남도교육청의 2023. 나도 작가 프로젝트 '2023. 학생, 한 권의 책이 되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는데, 일 년 동안 동시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시인캠프 참여, 시상식 등 다채로운 동시 관련 교육 활동에 참여했던 신지동초 5명의 어린이(5학년 박재영, 5학년 정윤아, 5학년 이해담, 5학년 이지현, 1학년 하민서)가 직접 쓴 동시 70편과 직접 그린 시화가 수록되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이다.

출판기념회는 △꽃다발 증정 및 작가 소개

나누기 △동시 퀴즈대회 △맛있는 동시 쓰기 레시피 공개 △행운 추첨 - 내 마음에 들어온 시 △작가님께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Q&A △시화 전시회 및 작가 친필 싸인회로 구성되었는데, 미리 배부된 동시집을 꼼꼼하게 읽은 독자들의 다양한 감상과 질문이 이어져 재미와 감동이 흐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시(詩), 작(作), 동시집을 쓴 5학년 이지현 작가는 "나의 생생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동시집이 출판되었다니 꿈만 같다. 일 년 동안 꾸준히 동시를 쓰면서 공감의 힘이 커지고 정성껏 글을 쓰는 습관이 생겨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5학년 이해담 작가는 "제주 어린이 시인 캠프에 가서 여러 동

시 작가님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동시를 썼던 경험이 정말 인상 깊었다. 내가 한 말과 생각이 시가 된다는 것은 참 놀랍다. 앞으로도 꾸준히 마음의 불을 켜고 동시를 써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학년 하민서 작가는 "내가 쓴 동시와 그림이 책으로 나오다니 정말 신기하다. 내가 쓴 동시를 읽고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해주니 정말 행복하다. 동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윤자 교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일 년 동안 꾸준히 동시를 읽고 생각을 나누며 그 배움의 결과로 멋진 동시집이 나오다니 대견하다. 어린이들의 따뜻하고 진솔한 시선과 경험이 녹아든 동시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경험이 학생들이 스스로를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인문학적 즐거움을 누리며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강진중, 독서인문교육주간 성황리에 마무리



강진중학교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독서인문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

'독서인문교육으로 감성 지성 up!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12월 22일까지 1주간 이어진 이번 교육주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지역도서관 연계 작가와의 대화, 다산박물관 견학, 다산 무드등 만들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1학기 1권 읽기 인문도서 및 국어 교과서와 연계한 독서골든벨, 책속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강진군도서관 연계 작가와의 대화'는 '하찮은 돌에도 역사가 있다'는 주제로 1학년 학생들이 임정자 동화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의 궁금한 점에 묻고 답하며, 작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돌문화에 깃든 우리 겨레의 삶과 생각의 역사를 배우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다산박물관 견학'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 견학과 다산 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다산실학의 내용과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강진에 스며있는 다산의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3학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 뉴스로 보는 관점 파악, 가짜뉴스 주의보, 카드뉴스 제작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기 생각을 책임 있게 미디어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었다.

'1학기 1권 읽기 인문도서 및 국어 교과서와 연계한 독서골든벨'은 학년별로 팀을 구성하여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독서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문도서와 국어책 깊이 읽기를 통한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형식의 문제 출제를 통해 통합적인 사고력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책속 보물 찾기' 도서관 행사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 전체에 활발한 독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책속 보물을 찾으면 독서명언이 들어있는 포춘쿠키를 선물 받았다. 포춘쿠키에는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명언이 들어있어 지속적인 독서 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

강진=김영일기자

## 순천대 학생상담센터,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개 상담사례 발표회' 호평



국립순천대(총장 이병운) 학생상담센터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전문상담자와 지역 내담자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공개 상담사례

지역 전문상담자와 자문가가 공개 상담사례 공유하는 교육 기회 제공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으로 열린 '공개 상담사례 발표회'는 상담전문 자문가를 초청해 내담자의 사전동의 후 개인신상을 비공개 처리한 상담사례를 공개 발표하고, 지역 상담 관련 실무진 및 교육생과 함께 사례에 대한 자문을 공유하였다. 순천대 학생상담센터는 최근 급증하는 심리상담 수요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로 4년째 발표회를 열고 있다.

국립순천대는 상담전문 자문가로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자 자격을 갖춘 김미란 전문상담사(대상관계심리상담연구소 소장)와 박희석 전문상담사(마음순리상담센터 소장)를 초청

하고, 공공 및 사설 상담센터,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 소속 상담·임상 실무자뿐 아니라 상담 관련 전공 학생 등 71명이 참여하여 상담사례 2건에 대한 분석 의견을 교환하고 상담개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개 상담사례 발표회 외에도,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으로 4차례에 걸쳐 ▲그라운드링과 안정화 훈련 ▲MMPI-2, TCI, SCT의 종합적 해석 ▲자살위험상담과 개입 ▲사례개념화의 이해 및 사례분석을 주제로 '전문상담자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며, 심리검사뿐만 아니라 자살 위기 내담자 개입, 사례개념화 등 상담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호평받았다.

순천=김승호기자

## 구례도서관, 겨울방학 맞이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 운영

겨울학기 학생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구례도서관(관장 이윤상)은 지난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겨울학기 학생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겨울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겨울학기 학습 연계성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설하였다. 운영 프로그램은 △어린이 발레 스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호기심 과학실험 △그림책 리딩푸드로 총 4개이며 1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1. 8.~1. 11.)에서 선착순이며, 정원 미달 시 방문접수(1. 12.)를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구례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평생교육 담당자(☎782-2365)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